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성장, 물가, 고용, 국제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로 발표되거나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

(1) 본부의 조사연구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19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 업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과정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심화⁷⁰⁾, 반도체 경기 둔화 등 교역환경 악화가 우리 수출 감소를 통해 성장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갖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미국, 중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에서 나타난 실물경기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 변화에 대해

시의성 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글로벌 메모리경기 둔화로 인해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반도체 수요여건을 중심으로 국내 IT 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를 평가하였다.⁷¹⁾ 또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기별로만 집계되는 서비스소비의 월별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잠재성장률을 새로이 추정하는 한편,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⁷²⁾ 또한 산업간 노동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본 다음 노동이동 경직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정하였다.⁷³⁾

물가 측면에서는 먼저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우리 물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⁷⁴⁾ 그리고 최근의 저인플레이션과 일반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비교한 다음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⁷⁵⁾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우선 제조업 취업자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뿐만 아니라 자동화와 같은 노동시장 내 구조변화에도 기인함을 밝혔다.⁷⁶⁾ 또한 산업별로 노동생

70)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8월)

71) IT부문 설비투자 리스크 평가(경제전망보고서, 2019.4월)

72)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조사통계월보, 2019.9월)

73)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조사통계월보, 2019.12월)

74) 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추세 인플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조사통계월보, 2019.10월)

75)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BOK이슈노트, 2019.6월)

76) 제조업 고용부진의 원인과 영향(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8월)

산성 변동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⁷⁷⁾, 실업자 그룹 내 구직기간별 비중 차이가 실업률 동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 인 프라 구축에도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선 물가동학의 미시적 측면을 시의성 있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소매업체가 보유한 미시데이터(구매자료) 활용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출의 기초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상황지표를 개발하였으며⁷⁸⁾, 잠재성장률 추정에 최신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전망모형도 개선하였다.⁷⁹⁾

중장기 조사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경제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을 감안한 통화정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⁸⁰⁾, 통화정책 파급경로⁸¹⁾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⁸²⁾, 위안화 환율변동, 국제 경기변동 등 국제무역 분야의 다양한 정책 참고자료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⁸³⁾, 재정정책, 기업정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충 및 교류 강화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Global Economic Linkages: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를 주제로 「2019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를 6월 초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⁸⁴⁾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정책 관련 종합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의 국가간 파급효과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미 뉴욕연준과 공동으로 「Spillover Effect of Banks' Linkages」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2월에는 「한국·헝가리 중앙은행 공동 컨퍼런스」 및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⁸⁵⁾」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한국·헝가리 중앙은행 공동 컨퍼런스」에서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중앙은행, 학계 및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들과

77)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조사통계월보, 2019.4월)

78) 수출의 기초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ET-COIN) 개발(조사통계월보, 2019.7월)

79) 유량접근법을 활용한 노동시장 전망모형(조사통계월보, 2019.11월)

80)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BOK경제연구, 2019년 2월)

81) The Cash-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Evidence from Mortgage Borrowers(BOK경제연구, 2019년 7월)

82) Taking a Bigger Slice of the Global Value Chain Pie: An Industry-Level Analysis(BOK경제연구, 2019년 1월)

83) Overhead Labour 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The Role of Product Diversification(BOK경제연구, 2019년 4월)

84)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하버드대 교수와 찰스 엔겔(Charles Engel) 위스콘신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마스 사전트(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폴 안트라스(Pol Antràs) 하버드대 교수, 안드레이 레브첸코(Andrei Levchenko) 미시간대 교수, 카렌 루이스(Karen Lewis)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마이클 드브루(Michael Devereux)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 등 저명 학자와 스타인 클레센(Stijin Claessens) 국제결제은행(BIS) 국장, 아티시 고쉬(Atishi Ghosh) IMF 히스토리언, 라트나 사하이(Ratna Sahay) IMF 국장, 마르셀로 에스테바오(Marcello Estevão) 세계은행 국장, 린다 골드버그(Linda Goldberg) 미 뉴욕연준 선임 부국장 등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85) 2017년부터 뉴욕연준 및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장기 경제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통화 및 통화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양국의 연구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거시경제의 구조적 변화, 거시건전성,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조사연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분위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서 간 협업연구를 강화하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⁸⁶⁾」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국내외 공동연구와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또한 연

구위원회 참여 부서를 확대하는 등 연구의 질적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 및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및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

86) 위원장(부총재), 부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12인의 운영위원(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 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주력산업(IT·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운송·관광 등 주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 내용을 본부의 관련 부서 등에 제공하고 「지역경제보고서」 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주력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였다.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취약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자료,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자료, 인구유출입 동향 및 전망 등 지역경제 현안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하여⁸⁷⁾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조선업 전망 및 향후 발전 전략」,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성장방안」 등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경제 전체적으로도 유용한 연구보고서를 작성⁸⁸⁾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다수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 진전, 글로벌 무역분쟁 격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충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활발히 개최⁸⁹⁾하는 등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의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⁹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에도 힘썼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지역경제포럼을 개최⁹¹⁾하는 등 지역 사회와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87) 2019년 중 총 67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지역본부간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88) 2019년 중 총 44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용역 및 1건의 단독 외부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89) 2019년 중 총 27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0) 2019년 말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91) 2019년 중 총 15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현지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⁹²⁾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최신 정책동향 및 연구자료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금융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개최된 국외사무소 직원 워크숍⁹³⁾을 통해 본부 유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교류 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였다.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I-O),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 등 5대 국민경제통계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big data)를 공식통계 편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데이터, 뉴스기사 데이터 등을 확충하는 한편 텍스트 데이터 분석, 대용량 자료의 효율적 처리기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 업무도 수행하였다.

표 III - 25.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 문	종 류
국민계정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¹⁾ ,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
가계부문, 미시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²⁾
물가지수	생산자물가(PPI), 수출입물가(EPI, IPI)
기업통계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경제심리지수(ESI)
금융안정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지급결제	지급결제통계
기 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³⁾

주: 1) 통계청과 공동
 2) 통계청·금융감독원과 공동
 3) 금융감독원과 공동
 자료: 한국은행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등 주요 통계에 대한 기준년 개편을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등 최근 경제 현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통계의 정도를 높였으며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거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2009~2014년 중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현재의 편제기준에 맞추어 소급편제하였으며 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시험편제함으로써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92) 2019년 중 총 45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3) 2019년 중 본부에서 1회 개최하였으며, 국외사무소 직원 외에 다수의 본부 유관부서 실무직원이 참여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택시장이나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타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통계를 새로이 편제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통계의 대상범위를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G20, IMF 등이 주도하는 DGI-2⁹⁴⁾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상세채권통계(Securities Statistics),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 해외증권투자통계(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작성 준비에도 노력하였다.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통계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주제로 「2019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을 개최(9월)하였다. 참가자들은 통계학습론적 관점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본개념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 데이터분석가의 역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산업연관표 이용을 활성화하고 산업연관표 이용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94) Data Gaps Initiative: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 익스포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DGI-2).

「지역 경제 분석에서의 산업연관표 활용」을 주제로 「산업연관분석 국제전문가세미나」를 개최(12월)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분석 및 연구 등에서 산업연관표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방법론 등이 논의되었다.

이 밖에 금융경제 관련 빅데이터 유관기관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이론과 처리 기법 등을 습득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한편 통계청과의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통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및 실무 워크숍 등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정착 방안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였다.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88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한국은행 홈페이지 메인메뉴 중 「경제통계」의 콘텐츠를 확충하였다.

이 밖에 통계전용 홈페이지인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기능 개선을 목표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⁹⁵⁾

95) 경제통계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 1절 사항 「IT 시스템 개선·확충」에서 확인할 수 있다.